

“교육공동체의 목표 이루어 나가길”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전북교육청이 전국(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 기본급 2.6%,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합의하고, 28일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16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교육공무직임금교섭은 6개월여 기간에 걸쳐 마무리 됐다.

전북교육청이 전국(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 기본급 2.6%인 상, 근속수당 급간 월 3만원에서 3만 2,500원으로, 정기상여금은 연 30만원을 인상하고, 도교육청 개별교섭결과 급식비 5만원 인상, 급식비 통상임금 적용, 퇴직금 변경기회 제공, 단시간 근로자의 각종 처우수당(급식비, 근속수당 등) 신설, 초단시간근로자(방과 후행정실무사)를 단시간 근로자(15시간)로 확대 운영, 복리후생적 수당(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급식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속사 사감의 수당신설, 웹센터 전문상담사의 I유형 편입, 초등스포츠강사 및 특수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 등 17개 직종에 대해서 합의하고, 2018년 119억, 2019년 218억을



전북교육청이 28일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추가 투입한다.

도교육청은 “성숙한 교섭문화로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이뤄 나가도록 노력하

고 있으며, 서로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사회적기업 두드림, 전주대에 발전기금 300만원 기부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두드림(대표 이사 송재홍)이 지난 27일 전주대에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송재홍 대표는 “그동안 전주대에게 방과 후 활동 교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라며, 이번에는 두드림이 발전기금을 통해서 전주대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기업에 더 많이 지

원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발전기금까지 받게 됐다”라며, “단 한 푼도 헛되지 않게 학생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 두드림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며,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 전경.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성과 빛나

호원대, 취업률 75.8%로 4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취업률 75.8%(2017년 12월 31일 조사기준)를 달성해 작년에 이어 4년 연속 전국 최우수대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명실상부한 호남지역 취업률 1위 대학의 쾌거를 이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제데이터베이스(DB) 연계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원대의 취업률은 75.8%로, 전국 4년제 일반대 평균 취업률 62.6% 보다 13.2%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대학 평균 취업률은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67.7%보다 1.5% 더 낮아졌다. 특히 전국 4년제 일반대 취업률 62.6%, 전북지역 4년제 일반대 취업률은 58.3%로 나타나 호원대학교는 전국 4년제 일반대 취업률인 62.6% 보다 13.2%p, 전북지역 4년제 일반대 취업률인 58.3% 보다 17.5%p이상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의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자연계열 80.7%, 예체능계열 77.5%, 공학계열 75.0%, 인문사회계열 71.7% 등 모든 계열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호원대는 2017년 취업률 75%를 기록했으며 2016년 취업률 77.7%, 2015년 취업률 75.0%로,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4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 및 호남지역 4년제 일반대학 취업률 1위를 자랑하게 되었다.

강희성 총장(호원대)은 “우리 대학의 높은 취업률은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호원대학교는 산업계와 학생중심의 특성과 교육과정이 더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의 정식모집은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인터넷과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 모집단위에서 군별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실력 으뜸 품행 으뜸 전북 체육 꿈나무들, 체육장학생·농촌 학교체육분야 장학금 수상

실력도 으뜸 품행도 으뜸인 전북 체육 꿈나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28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미래 전북 체육을 이끌어 갈 초·중·고교 학생 28명이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체육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체육장학생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체육 활동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해 타의 모범이 되고 전국구

모태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는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28명(초등학교 8명·중학교 10명·고등학교 10명)이 우수선수로 선정됐고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총 1천 7백 9십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상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이와함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농촌지역 학교 운동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도내 36명의 학생 선수들도 대한체육회의 '농촌지역 학교 체육분야' 총 1천 8백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선정된 36명을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2명 등이다.

이들은 올해 각종 전국구대회에 참가했거나 국제구대회에 참가에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초·중·고 동일)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학생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미래 전북 체육을 이끌어 갈 꿈나무들을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부 유학생지원센터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7일과 28일 동계 워크숍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유학생 적응 돕기 워크숍 '큰 호응'

무주리조트 찾아 유대감 형성

“여러 나라 유학생들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어 뜻깊어요”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부 유학생지원센터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7일과 28일 동계 워크숍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중국과 몽골,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에서 온 80명의 유학

생들이 참여했다. 매년 외롭게 방학을 보내는 유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 오고 있는 전북대는 올해 동계 워크숍에는 겨울 대표 스포츠인 스키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서로 다른 국가의 외국인 선·후배 간 레크레이션과 지역 문화체험 등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

다. 운영속 국제협력부부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방학동안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행사를 통해 그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외국인 학생들이 타국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